

총여학생회 4차 중앙운영위 제안서

수신 : 각 단대 여학생회장님

발신 : 제12대 총여학생회

일시 : 회당 97 1월 22일 수요일 5시

장소 : 총여학생회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기 전, 한때 콜롬비아대학 총장으로 재직했었다. 어느 날 그는,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려는 결재 서류를 접했다. 징계사유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잔디밭을 학생들이 함부로 보행하여 망가뜨렸다는 것이었다.

총장은 잠시 결재를 미루고 실무자와 함께 현장답사에 나섰다. 현장에는 '출입금지'표지판이 선명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표지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잔디밭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총장님, 총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데도 저 모양 아닙니까? 마땅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실무자는 거 보라는 듯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총장은 묵묵히 현장을 목격하고,

“아닐세, 어서 저 표지판을 치우고 그 자리에 길을 내어주게나. 학교는 학생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지혜는 물 흐름의 급류보다 더 빠르고 거센 힘으로 노를 저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며 '우리'는 전적으로 학우대중을 믿을 때만이 하나로 뭉쳐질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벌써 방학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예년과 같다면 이 맘때 쯤이면 등록금 투쟁을 통해서 민족복원이 들썩들썩하면서 쪽쪽들이 우리 학우들이 학생회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할 시기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의 마치 폭풍의 눈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내부로 탄탄해 질 수 있는 기회임을 알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개미처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시대는 청년학생을 부르기에 한시도 미제국주의와 김영삼 일당에게 눈을 떼서는 안될 것입니다.

붙시다

밖은 일선 노동자 분들에서 시작하여 87년 6월 항쟁이후 처음으로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나오고 각 언론계, 종교계, 교수님들, 노동자의 부인인 30.40대 아주머니까지 성명서를 내고 승리하는 전민항쟁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상황입니다.

대선의 고지까지는 너무나 험난하기에 우리 노동자 동지분들이 끝까지 매진할 수 있을 지에는 우리 청년학생의 몫입니다.

여학일꾼 여러분 여성자주화의 사상은 바로 역사의 주인으로의 인식이라 했습니다.

투쟁입니다. 투쟁속에서 단련된 일꾼은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막연히 집회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내용으로 집회를 만들어 갑시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상향

단위 총화

중앙 보고

- 방중 평가 중심으로 앞으로 남은 방학동안 우리의 중심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간부학교

- 예년을 생각하면 벌써 여학일꾼 전진대회도 하고 대경총련 일꾼학교, 경북 대 간부 학교, 등 아주 바쁜 일정이었으나 지금은 괜히 별 다른 일정이 없는 게, 농담삼아 온 몸이 무안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멀뚱히 하늘만 쳐다보고 '그래도 작년이 나왔지'라는 푸념만 늘어놓는 우리 여학 일꾼들이 아님을 잘 압니다.

방중 기간 가장 중심에 두고자 했던 것은 일년을 관통하는 사업에서 준비기 사업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했습니다.

즉 일년의 큰 물줄기, 맥을 찾아나가고 잡아나감과 동시에 일꾼들의 정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이며 또한 나는! 우리는! 여학 일꾼이라는, 8000여학우를 대표로하는 대중조직의 대중간부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부 학교를 제안하고 예년과는 다른 형식에 한층 심화되어야 하는 내용을 중앙운의 여러분과 예기 해보고저 합니다.

일정: 2월 10일과11일 로 박으로 할 건지도 고민해야 함

내용: ?

예비대학

일정: 2월 22일-24일

장소: 지리산

여학생회의 첫 대중 사업임과 동시에 97년을 이끌어 갈 새내기를 맞이 하는 사업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주체총화서를 읽읍시다.

함께 공유합시다. 왜 그러는지는 잘 알죠!

